

## 춤추는 장소에 대하여

### On Dancing Sites

노영재(Roh, Young-jae)\*

Victoria Hunter(ed)(2015). *Moving Sites: Investigating Site-Specific Dance Performance*.  
Routledge.

춤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해 생각할 때 무대와 객석이 있는 극장은 가장 일차적인 물리적 공간으로 다가온다. 예술춤의 역사에서 프로시니엄 무대가 갖는 상징성은 뚜렷하다. 춤이 행해지는 공간과 관객의 공간을 인위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춤은 원근법을 기반으로 미적인 원리를 획득하며 독립된 예술의 한 장르로 격상되었다. ‘제4의 벽’과 같은 가상적인 분리는 한편으론 일방적 시선이 자아내는 대상의 신비화나 관음증과 같이 시각적 쾌락에 근거한 비판적 담론을 생성하는 장이 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는 20세기 초 이사도라 던킨, 루스 세인트 테니스 등의 초기 현대 무용가의 공연, 그리고 1960년대 포스트모던 안무가들의 해프닝과 같은 라이브 작업에서 비롯된 장소 특정적 공연은 바로 이 프로시니엄 극장 무대를 거부하며 나타난 공연의 형태이다. 전통적인 극장을 벗어나 야외, 자연, 공공시설 등을 춤추는 장소로 택한 포스트모던 안무가들의 작업은 장소를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닌 교감하고 성찰하는 공연의 시작점이자 주요 요소로 인식하였다.

무용에서 장소 특정적 춤이라는 공연형식의 등장은 그 유래를 타 예술과 비교해볼 때 뒤늦은 현상은 아니나 이론적인 개념 정립이나 논의는 다소 더디다. ‘장소성(placeness)’ 혹은 ‘장소 특정성(site specificity)’이라는 용어와 함께 이론적으로 먼저 연구가 이루어진 곳은 2000년대 초 미술 분야이다. 대표적으로 미술사학자 권미원(2002), James Meyer(2000)의 연구는 공공미술과 설치미술을 바탕으로 장소 특정성에 대한 개념과 역사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고, 극예술 분야의 Nick Kaye(2000)는 설치 및 퍼포먼스의 관점에서 장소 특정성의 개념을 깊이 있게 논의하여 장소성의 문제를 공연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만하다.

오늘날 무용 공연의 장소가 극장이 아닌 점은 놀랄만한 것도 아니고 국내외 많은 사례가 공연과 교육 분야에서 축적되고 있지만 이에 반해 장소 특정적 무용 공연에 대한 이론적 정립이나 학문적 논의는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Victoria Hunter 편집의 *Moving Sites: Investigating Site-Specific Dance Performance*는 장소 특정적 무용 공연의 학문적 기반 마련에 오롯이 헌신하고

\*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특별연구원

있다고 생각된다. 이 책의 편집자인 무용학자 Hunter가 서론에서도 언급했듯 무용학 연구에서 장소와 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주요 연구물로 Melanie Kloetzel과 Carolyn Pavlik의 *Site Dance: Choreographers and the Lure of Alternative Spaces*를 빼놓을 수 없다. 2009년 출간된 *Site Dance*가 대안적 공간과 작업한 안무가들의 생생한 체험을 담았다면 이 Hunter의 책은 비평적 관점에서 다양한 학술적 실천적 접근들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Hunter는 책의 전반적 소개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던진다(p. 2).

- 안무가는 어떻게 장소 특정적 무용 공연을 만드는가?
- 춤추는 몸이 장소, 환경과 관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통해 이러한 유형의 춤을 어떻게 해석, 분석, 평가할 수 있을까?
- 이러한 춤 유형의 실천이 어떻게 체화, 장소, 공간, 환경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 무엇을 드러내는가?

주로 영국과 북미에서 활동하는 안무가와 이론가들이 기고한 에세이 25편을 엮은 이 책은 주제에 따라 크게 다섯 섹션으로 나뉘며 각 섹션마다 편집자의 간략한 견해도 함께 담았다.

첫 번째 섹션은 장소와 공간의 접근 방식에 관한 것으로 현상학 및 공간 이론 등을 통해 현장 경험을 직면하고 다루게 되는 장소 특정적 무용 공연의 시작점을 살펴본다. 따라서 이론과 실제의 시작점에서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 무엇에 반응해야 하는지, 공간 정보와 장소 기반 경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같은 질문을 전제로 한다(p. 23). 이와 함께 장소의 경험과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현장에 대한 반응이 창의적인 공연의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탐색한다. 또한,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의 공간 이론과 안무의 실제에서의 유사성을 살펴보고 Hunter는 ‘영향 모델’을 통해 공연에서 새로운 공간이 창조되는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두 번째 섹션은 보다 구체적인 장소 경험과 경험이 ‘위치하는 곳’에 관한 숙고이다. 이 장에서 저자들은 물리적, 실제적 공간뿐 아니라 스크린 댄스, 모바일 테크놀러지, 가상 공연 등이 구축하는 장소, 혹은 이 두 가지가 혼재된 작업의 예를 다룬다. 이를 통해 안무자, 공연자, 관객이 춤을 구현하고 체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행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진다. 그리고 현상학적 관점에서 공연자와 관객의 만남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 특정적 공연이 어떻게 ‘지금-여기’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용이하게 인식하도록 촉진하는지를 조명한다.

세 번째 섹션은 ‘축조된 환경과 도시 실천’이라는 주제로 도시 지역에서 제작된 여러 가지 장소 특정적 공연의 예를 보여준다. 도시에서의 실천이라 함은 거리뿐만 아니라 집, 직장, 학교 등 일상적인 도시 공간과 건축물에서 행해진 작업의 실체를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여기서 오슬랜드, 샌프란시스코, 캘거리, 런던, 미니아폴리스 등에서 이루어진 공연을 중심으로 도시 연구, 인문지리학, 사회학, 심리학, 페미니즘 등의 이론적 틀을 가져온 저자들은 각 도시의 역사성, 지역성 및 사회적 이슈를 조명하고, 도시 공간 속 공공장소 및 시설에서 공연이 숙고하는 인간과 환경의 문제를 논의한다.

네 번째 섹션은 도시와 인공적 건축물과의 작업에서 벗어나 자연과 농촌으로 장소를 옮겨 비도시적 환경과 풍경을 경험하는 신체를 조명한다. 이 부분에서는 해변과 같은 자연환경에서의 신체의 다감각적

경험, 생태학적 움직임의 특성, BMC® 기반의 소매틱 작업 등이 소개되며, 여기서 의미하는 신체적 경험은 자연을 만끽하는 낭만적 감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주로 소매틱적 측면과 비물질적 세계를 성찰하는 현상학적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섯 번째 섹션은 장소에 소속되고 관여하는 커뮤니티와의 역할 관계에 관한 것으로 춤을 만들어가는 작업의 내부로 들어간다. 안무자와 무용수뿐만 아니라 일반인, 협업 아티스트 등 다양한 커뮤니티 구성원이 함께하는 장소 특정적 공연의 특성을 다시금 상기하며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새로움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역사적 장소, 유명 박물관, 공공 도서관 등 지역 커뮤니티의 전통과 행정이 깊이 관여하는 장소의 예를 통해 저자들은 공연 제작 과정에서 장소를 둘러싼 협상은 관행이자 필수적 요소이며 이는 사회경제적, 넓게는 정치적 측면까지 고려하는 통찰력이 필요한 작업이라 강조한다.

이 책의 장점은 먼저 현재 행해지고 있는 장소 특정적 무용 공연의 풍부한 사례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며 독자의 관심에 따라 저자들이 보여주는 다채로운 주제와 대상이 색다르고 의미 있게 다가올 것으로 생각된다. 장소 특정적 공연에서 안무자와 공연자들은 장소의 가변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극장 공연보다 더 많은 것을 고려하고 탐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는다. 장소 자체가 공연을 위해 세팅된 것이 아니며 선택된 장소는 그 자체가 목적이자 성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춤이 추가되기 이전 장소 본래의 성질과 내러티브가 있고, 춤의 공간으로 변모했을 때엔 공연자 외에도 동시에 일반인(불특정 대중, 때론 지역 주민), 행정가, 가변적인 자연환경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장소 특정적 공연은 창작 과정에서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각도에서의 숙고와 연구, 그리고 협상이 필연적으로 함께한다. 공연의 작업 과정과 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곳곳에 있으며 이 책의 수많은 예는 그러한 현장의 경험과 난제를 잘 포착하고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책에 담긴 이론과 실재를 연결하고자 하는 학문적 노력에 주목해보는 것도 유용할 듯하다. 우선 Hunter가 서론에 할애한 장소 특정적 공연의 개념과 역사적 영향에 관한 정리는 무용 이전에 이미 행해진 다른 장르의 장소 특정적 작업과 함께 무용 공연의 흐름을 살펴보고 그 양상을 논의함으로써 장소 특정적 공연의 계보 속에서 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Hunter는 장소 특정적 공연에 대한 학문적 논의나 문서화의 부족을 지적하면서 타 예술 장르부터 무용에 이르기까지 장소 특정적 공연 및 연구의 유래와 활동을 집약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다. 또한, 공연형식의 시초와 중심으로 많이 거론되는 20세기 미국의 성과뿐만 아니라 편집자가 활동하는 영국의 현황까지 짚어봄으로써 서구의 장소 특정적 공연의 확산 양상을 탐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프로시니엄 극장의 메커니즘에서 비판 담론이 촉발되었듯이 춤이 장소를 무한히 확장함으로써 춤과 장소를 둘러싼 학문적 접근 역시 폭넓게 발전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꾸준한 주목과 발전 양상에도 불구하고 공연과 실재에서 공연자들의 장소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다양한 만큼 장소에 대한 접근 또한 다양하기에 ‘장소 특정적’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명확하게 하나로 정의하거나 이론적으로 범주화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 책은 장소 특정적 춤을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 무용학적 관점과 더불어 건축학, 생태학, 사회학, 철학, 공간 이론 등 다양한 학문적 틀을 가지고 오는 학제간 연구의 방식을 취한다. 여기서 저자들이 취한 타 학문 분야와의 접목의 근간은 인문사회학에서 깊이 다루어진 ‘장소’와 ‘공간’에 관한 폭넓은 담론에 있다. 장소 특정적 공연에서 춤의 장소가 물리적 배경이

란 인식을 뛰어넘듯 특히 장소를 인간 사유와 삶의 양식을 성찰하는 하나의 의미체로 보는 인문학적 접근은 장소 특정적 공연을 논의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도구로 다가온다.

이 책에서 눈에 띄는 주요 이론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안무와 관련해 주목받는 이론은 무엇보다 현상학적, 경험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거주(dwelling)’, ‘세계 내 존재(being-in-the-world)’ 등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시각과 메를로 폰티의 몸 철학 이후 무용학에서의 현상학적 논의는 장소와 춤추는 몸을 연계하는 담론 전개에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개인의 경험을 중시하는 현상학적 사유는 인문지리학의 근간이 되기도 하기에 지리학자 이푸 투안, 에드워드 렐프 등이 주시한 인간과 장소 간의 깊은 유대감 또한 공연에서의 장소 경험과 연계되기도 한다. 한편론 들뢰즈와 가타리, 자크 랑시에르, 마크 오제, 에드워드 소자, 미셸 드 세르토, 앙리 르페브르 등이 매진한 도시 공간 및 공간의 정치적, 사회적 실천에 관한 연구도 장소 특정적 공연을 또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는 데 유용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인문사회학에서의 장소-공간 담론은 장소와 공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격렬한 논의가 거듭되었으며 이 책의 저자들은 공연에서 장소를 나름의 방식으로 분석하고 개념화하는 이론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학제간 접근 혹은 학문적 도구의 활용은 특정 장소의 작업을 이해하는데 깊이와 다양성을 더해준다. 그러나 동시에 장소-공간 담론의 방대함처럼 장소 특정적 공연 역시도 개념을 구체화하거나 범주화하는데 여전히 난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Hunter가 서두에서 제기한 질문처럼 따라서 이 책은 특정 장소에 대한 고정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특정한 이론적 아이디어가 장소 특정적 공연에 대한 보다 넓고 유연한 이해와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여기에서 유용할 것이다.

서구의 포스트모던 작업에서 유래를 찾았던 장소 특정적 공연은 오늘날 국내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비평의 대상으로도 자주 만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2년간 팬데믹으로 인한 공연환경의 변화와 테크놀러지의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시대 흐름에서 볼 때 공연의 장소는 무한히 확장되기에 장소에 대한 논의는 흥미로움을 넘어 필수불가결한 주제로까지 감지된다. 한편론 이처럼 극장을 벗어난 공연의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국내 무용학 연구에서 참고 자료의 부족으로 장소 특정적 공연의 이론적 정립이나 고찰에 대한 어려움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소수의 연구자가 흥미로운 시각으로 춤과 특정 장소를 깊이 있게 논의함으로써 국내에서도 학문적 논의가 서서히 확장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 책을 들여다보며 느낀 점은 발생지라 여겨지는 서구에서도 장소 특정적 공연에 대한 학문적 탐색은 소수의 학자와 현장 예술가의 긴밀한 소통하에 정착 단계에 있으며, 학계에서는 학제간 접근을 통해 변화하는 공연의 지형을 진지하게 다각도로 해석하고, ‘춤 장소’가 구축하는 독창적 의미를 찾고자 노력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Moving Sites: Investigating Site-Specific Dance Performance*는 이론과 실제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전통적인 장소를 벗어난 공연을 둘러싼 지속적인 논쟁과 토론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춤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유연한 해석의 방법론을 모색하게끔 한다.

■ 참고문헌

---

- Hunter, V.(ed)(2015). *Moving Sites: Investigating Site-Specific Dance Performance*. Routledge.
- Kaye, N.(2000). *Site-Specific Art: Performance, Place and Documentation*. Routledge.
- Kloetzel, M. and Pavlik, C.(eds)(2009). *Site Dance: Choreographers and the Lure of Alternative Spaces*. University Press of Florida.
- Kwon, M.(2002). *One Place After Another: Site-Specific Art and Locational Identity*. The MIT Press.
- Meyer, J.(2000). “The Functional Site; or The Transformation of Site Specificity” in *Space, Site, Intervention: Situating Installation Art*. Erica Suderberg(ed).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